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21.1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50년”

임영자 데레사.FMM

스물네 살의 사회 초년생이 이는 준비되었다며 수녀원 문을 두드린다. 첫 문은 “가르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던 곳, 그러나 나에게 이 문은 열리지 않았고, 아주 새롭고 낯선 “FMM” 의 문 이였다. 그것도 봉쇄가 아닌 온 세상을 내 집 인양 국경 없이 자유롭게 다니는 선교회이다. 그렇게 나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드나들며 세상은 참으로 하나임을 알게 되었고,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이고, 나의 형제임을 마음으로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왔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누비며 살아 왔을까?” 되묻게 된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떠나라!” 라는 파견 명령에 나는 그냥 내 발을 내디뎠을 뿐, 그 이상은 나 자신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고 당신의 도구를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셨다.

“트럭에 깔려 머리부터 한쪽다리까지 찢 갈라진 환자”를 속살부터 꺾 메기 시작하여 겉살을 꺾 메니 살아난다. 칠 흠 같이 어두운 밤중에 임신부를 들것에 메고, 온 마을을 움직여 오게 하시고 피를 토하는 어린이의 목 안에서 거머리를 빼내 주시며, 도끼에 발등이 찍혀 갈라진 발도 제 모양으로 되돌려 놓으셨다. 에이즈 환자의 처절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며, 그의 임종을 지켜주신 주님! 당신은 이렇게 제안에서 당신 사랑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풋풋한 유기서원기초에 책에서만 들었던 나환자와의 만남, 그들의 비참한 현실은 참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70년대 이 나라의 경제 수준은 지금과 비교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웃기도 하고 놀기도 하며 나름의 생활을 이어가며 행복한 모습 이었다. 그들에게서 나는 하느님의 현존을 보았고, 하느님은 우리 모두를 같은 사랑과 보살핌으로 돌보심을 보았다. 무의촌 지역에서의 진료로 꼭꼭 숨겨져 있던 환자들을 찾아내어 치유해주시고, 노인들을 돌봐 주시고, 장애인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신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수도생활 50년을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현존을 서서히 그리고 잔잔하게 보여주시며 함께해 주심을 온 마음 다하여 감사,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선 fmm(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수녀회)의 관상생활을 깊이 살아보라 하신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이영주 스텔라.FMM

오후 2시. 햇살이 한창입니다.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방안을 떠다니는 먼지나 보푸라기들. 잘 보려면 빛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잘 보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경이 그어져 있어도 물은 아랑곳 하지 않고 흐릅니다. 공기는 온 하늘을 뒤덮습니다. 새들은 비자 없이도 여러 나라를 통과하며 다닙니다. 제 3국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값싼 임금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가성비 높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 덕분에 또 다른 누군가는 더 많은 이윤을 챙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느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굳이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아도 신앙의 빛으로 보면, 이 세상의 주인은 창조주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세상 만물을 볼 때 이 빛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믿기에, 조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값비싼 모피를 보면서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의 재력을 가늠하기 보다는, 그 모피를 내어주고 떠난 동물의 마지막 모습을 봅니다. 번들번들한 자가용을 보면서 그 차에 탄 사람의 직업을 상상하기 보다는, 그 차가 내뿜는 배기가스를 봅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음식쓰레기를 보면서 지저분하다고 눈살 찌푸리기보다는, 굶주리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봅니다. 쉽게 쓰고 버리는 휴지나 종잇조각을 보면서 그걸 버린 사람의 양심을 탓하기 이전에, 그 때문에 쓰러지는 나무, 사라지는 숲들을 봅니다. 장엄한 대자연의 위용을 보면서 그걸 갈아엎어 개발할 궁리를 하기 이전에,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위대함을 봅니다. 고통 받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을 남이 아니라 내 형제요 자매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나에게 왔는지, 나의 편리함이 누구의 수고 덕분인지,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아니, 보기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그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직은 겨울이라 햇살이 약합니다. 그래도 신앙의 눈을 키운다면 이미 와 있는 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눈 뜨고, 제대로 볼 수 있기를. 그리하여 올 한해는 밝고 훈훈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올 한해 후원자님들과 그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가장 뛰어난 장관에서부터 가장 작은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자연은 경탄과 경외의 끊임없는 원천입니다. 이는 또한 하느님의 끊임없는 계시입니다.” - 「찬미받으소서」, 85항 참조.

새해인사

사하야 로시.FMM



맑은무지개 센터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이 - 이제 2021년 신축년이 밝아옵니다. 코로나 19로 세상이 많이 시끄러웠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천 - 천천히 백신이 개발 되어 접종을 시작했으니 다행이고, 2020년 힘들었던 일들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이 - 이루지 못한 소망들은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

십 - 십이월 달의 마지막 날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 - 일상생활을 곰곰히 생각해 보았더니..... 모두가 2020

년 - 년에 정말 수고 많으셨고, 선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올 수 있었기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지난

해 - 해를 살피보면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후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복 - 복을 내려주시고 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많 -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 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힘들었던 이주민과 난민들이 여러분들에게

- 반** - 받았던 도움으로 마음에 희망의 꽃이 계속 피어날 수 있었고 행복하였습니다.
- 으** - 으뜸이신 하느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 세** -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2021년 새해에는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요** - 요즘은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멋진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 2021년에 “나눔” 은 격월로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겠습니다.
- * 2020년 개인 기부금은 2021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 기부금영수증, 사업장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이메일 fmmhelper@daum.net / 카톡 010-2821-8174
 으로 신청해주시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동 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국민은행 362737-04-000395 농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sp@hanmail.net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12월 1일 ~ 12월 31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재)고려문화재단	(주)제이에스파트너스	강경아	강미현	강석민	강숙자	강승완	강신연
강연호	강영혜	강지우(왕효준)	검단성당	검암동빈첸시오	고대완	고승현	고월순
고유연	고재영	고지영	고희숙	공해용	곽채현(곽영주)	구영희	구유희
권순익	권영오	권용훈	금부동	금창호	김경미	김경희	김광기
김귀선	미리암	김귀선	스테파니아	김덕칠	김도상	김도영	김동일
김두현	김두환(김철형)	김득수		김득현	김미리	김미애자	김민규
김상연	김상태	김삿별	김성용	김성원	김성환	김수경	김수자
김시윤	김시준	김애자	김연진	김영덕	스테파노	김영덕	프란치스코
김영운	김영재(허갑수)	김영주	김영준	김영희	김옥림	김옥주	김용덕
김용식	김용자(윤소라)	김용주	김용준	김원진	김유정	김인서	김인회
김재욱	김정숙	마리아	김정애	김정웅(김명신)	김정임	엘리사벳	김정주
김정혜(정구충)	김정환	김종연	김주옥	김준희	김지혜	김진미	김진숙
김진식	김진욱	김춘자	루갈다	김춘자	안나	김태욱	김해자
김혜영	김호생	김호송	김홍양	김화자	김효수	김희재	나숙희
노미경	노병덕(권정희)	노봉근	노석심	노연주	노정애	당효준	류순자
문명숙	문성식	문준식	민정웅	박라희(임영희)	박민선	박병옥(송덕규)	박병주
박병주	박성근	박성길(정은아)	박성준	다니엘	박성준	도미니코	박성창
박소진	박수경	박수인	박순옥	박양순	박용숙	데레사	박원서
박은정	박은희	박인호	박재용	박정미	박정선	박정순(임현서)	박정식
박찬순	박태분	박현희	박혜정	박홍권	박화자	박희수	박효정
방진	배수정	배인호	배장열	배철희	백미자	백성대	변복자
삼성동성가정나눔회	서춘자	서태진	서현수	서혜석	석상령	성상모	성영주
소은순	소재록	손순덕	손윤희	손은주	손정례	송비아	송순이
송승윤(김영임)	송영희	송정애	송채영	송혜경	신동규	신승일	신유라
신주화	신희식	심귀선	이가맘2호	안미령	안양금	안지현	양공연
양윤석	양종한	오숙자	오영희	오옥형(최민귀)	우복명	우영희	윤남동
원ENG	원세경	유경혜	유미경	유병춘	유복희	유시연	유영재
유춘성	유혜정	헤레나	유희숙	프란치스코	육동배	윤경숙	윤규현
윤미숙	데보라	윤미숙	파우스티나	윤보미	윤봉수	윤순자	윤순희
윤현숙	이갑수	이강모	이경로	이관훈	이광진(홍기원)	이광희	이귀순
이기혁	이동세	이동준	이동현	이명순(이선영)	이명혜	이미자	이민희
이선경(송창훈)	이성남	이성혜(유주영)	이성호(조봉례)	이성호요셉	이연실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복	이영애	이영혜	이옥자	이용길	이윤신	이은미
이인권	이인동	이인숙(경동메디칼)	이인숙	로사	이정란(최윤)	이정숙	데레사
이정숙	마리아	이정숙	수산나	이정준	이정하	이정희	소피아
이지아	이지인	프란체스카	이창석	이태금	이필단	이항남	이해일
이홍식	인용석	임도원(임영희)	임수경	임승옥	임윤섭	임주리	임지원
임호	장민정	장세옥	장영문	장영표	장우영	장원태	장현아
전제관(대아측량토목)	전충엽	정경원	정경필	정동락	정명국	정미영	정미화
정부강	정석영	정성민	정소영	정수인	정숙자	정영숙	정옥희
정재훈(정지호)	정진명	정진숙	정향숙	젼마	정혜경	정희파	키스탄
조남섭	조명숙	조봉례	마리아	조상위	조석금	조수미	조용자
조정희	조혜영	조화숙	조희공	조희무	주)가나스틸	지정희	진성자
진신아	차영자	최규범	최금영	최두진	최미라	최선애	최성순
최연희	최영숙	최옥자	최원단	최원철	최은실	최인석	최일순
최효순	최휘선	추상식	추영숙	추종현	태계남	파키스탄	박진
한순옥	한영미	한옥선	한은희	한진경	한효정(권오현)	함형준	요안나
현경미	홍말숙	홍명숙	홍미자	홍민선	홍민희	홍성란	홍세아
홍은숙	홍익기	황경희	황달수	황인복	황정숙	홍수봉	홍승희